

Vivid X Cassiopeia Model United Nations CHAIR REPORT

Committee
유엔 기후변화협약

AGENDA
분쟁지역에서의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논의

위원회 소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2년 6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총 157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모든 당사국은 협약 제4조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일반 의무와 특별 의무를 나누어 이행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arbon Mechanisms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인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은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구온난화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강제성을 띠지 않고, 권고의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제 소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류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 사용, 산림 벌채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 산림과 열대 밀림 파괴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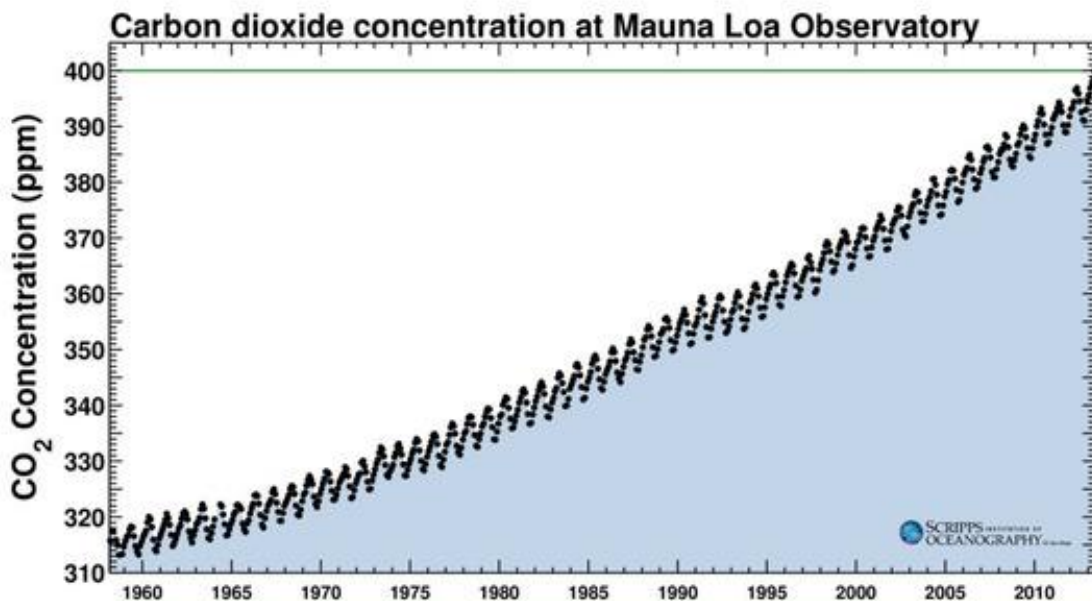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적으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열이 우주로 방출되지 않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알려져 왔다. 건조 기후 지역이 증가하고, 온대 기후 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률과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국제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에 해당하는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선진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여러 선진국이 협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타 국가 또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비비드 X 닷별교육 모의유엔 유엔 기후변화협약 위원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게 된다.

역사적 배경

지구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오르는 현상이다. 그러나 현대에 논의되는 지구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부터 관측된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기온 상승을 가리킨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 활동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농업 발전에 따른 화전 농업의 활성화, 농지 개간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온실효과의 극심화로 인해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에 관한 규제와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과거에도 지구온난화는 지속되어 왔다. 20세기 초까지 지구온난화는 자연 현상에 의한 발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세기 말부터는 인류의 산업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19세기 말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약 0.6도 상승하였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각지에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 바타가이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3km 벗어난 곳에 영구동토가 녹으며 지반이 가라앉았고, 깊이 100m, 길이 1000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민가 주변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위 그래프는 1958년 대표적인 온실가스 관측소인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다. 그래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끝에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제시한 기준선인 400ppm¹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¹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 백만분율을 의미한다.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면, 곧 450ppm을 넘어설 것이고 지구의 온도도 섭씨 2도가 높아져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당사국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보고서 제출을 통해 지구온난화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을 맺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교토 의정서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상황 및 문제점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온도 상승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건조기후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남북 서부의 아프리카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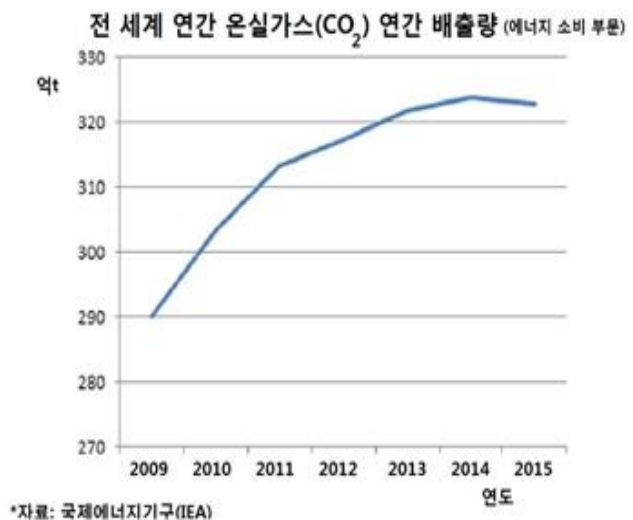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다양하다. 먹이 사슬 형태로 유지되어 온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일부 동식물이 멸종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도의 벵골 호랑이의 수는 절반이 줄었으며, 판다는 수백 마리만이 남는 등 지역 희귀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2만 5,000종의 식물 그리고 1,000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한다. 지구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지난 20세가 동안 15cm 상승하였다. 1990년과 비교하여 2100년까지 20cm~90cm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북극 지역에 있는 산지 빙하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상되며, 해변에 밀집된 지역은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폭염 또한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은 “2018년 전 세계에 몰아닥친 폭염이 2022년까지 5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연구팀은 이러한 폭염 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2018년 40°C가 넘는 폭염과 산불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리스는 물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최고 기온이 45°C를 넘어섰다. 스웨덴은 100년 만의 폭염으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캐나다도 147년 만에 폭염으로 평년 여름 기온보다 21°C 상승한 최고기온 37°C를 기록하였다. 다음 사진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영국 사우샘프턴대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각 국가의 폭염 현황이다. 대부분 국가가 최고기온을 기록하였으며, 평균 40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에너지기구나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 상태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인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으로 제출된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에서의 기존 기온 상승목표인 2도에서 1.5도로 낮추자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5도 낮아질 시 해수면은 10cm가 더 낮아지게 되고 태평양 섬 지역과 연안에 사는 1,0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북극 해빙이 사라질 확률도 1/10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제3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전 세계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화재와 태풍, 그리고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앞으로 10년 내 지구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세계자연기금 기후변화 수석고문인 스티븐 코닐리우스는 “지구의 기온이 2°C 상승하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용어 설명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나 현대에 논의되는 지구온난화는 주로 19세기 말부터 관측된 기온 상승을 가리킨다. 지구온난화는 대체로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2차 산업 혁명 이후부터 증가한 석탄 소비량과 최근 석유의 과다 소비가 숲을 파괴하고 대기 오염을 유발하였다. 19세기 말 이후로부터 기온이 0.6도 상승하였으며 인류의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가동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가스 형태의 물질이다. 온실기체라고도 칭하며,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온실효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수증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가 존재하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메탄, 과불화탄소, 그리고 육불화황이다. 또한, 1985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반면, 지표의 평균 온도를 물의 어는점보다 높게 하여 생명체 존속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 또한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연료 기반 산업 활동과 화석연료의 연소와 삼림 제거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탄소가 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한다. 일상에서는 물론,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촉진한다. 특히 탄소가 함유된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된다.

영구동토층

영구동토는 2년 이상 토양의 온도가 영하 즉 0도 이하로 유지된 토양을 의미한다. 지구의 약 14%를 차지하며 주로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시베리아에 분포하고 있다. 영구동토는 2년 이상 토양 온도가 영하로 유지된 토양이기에 흔히 얼어붙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 타이슨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분자생명과학과 타이슨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미생물이 동토 속 탄소 자원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대사가 활발해졌다”라고 말하였다. 즉, 영구동토층에 숨어 있는 미생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영구동토층의 녹는 현상은 지구온난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74년 F.S 로우랜드 교수가 “오존층 파괴 문제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 그리고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협약이다. 2021년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한 신 기후변화협약이며,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되어 파리기후협약이라 부른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첫 기후협약이다. 하지만 2017년 미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의 제한과 미국의 불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고 2018년, 기존 미국을 제외한 194개국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에 진행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이며, 앞서 리우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명시한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조항 의무 이행 대상국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회원국을 비롯하여 총 37개국이다. 협약에 서명한 각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였다.

오존층 파괴

지상 30km에 상공에 고농도의 오존이 존재하는 층을 오존층이라 한다.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가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오존에 있는 산소 결합 고리를 파괴하여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을 뜻한다. 오존층 파괴로 인해 농작물 혹은 해양 생태계 생육에

영향을 주게되고,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단파장의 유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국가별 입장

중국



중국은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논의한 환경친화적 신형 산업화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위안 단위 배출량 감축,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제13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저탄소, 순환발전 육성'의 조항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없는 사회 발전에 대한 목표를 확고히 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온실가스 절약을 목적으로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총 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

미국은 셰일 가스 생산과 원전 노후화에 따른 청정에너지 교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65억 이상 감소시켰다. 게다가 2014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청정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발전계획'을 실시하였고,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에너지 비중을 높여 지속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정권은 청정발전계획 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자국의 산업 규제 보호를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다.

유럽 연합



유럽 연합에서 1990년대부터 기후 정책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토 의정서가 승인된 2000년 부터 기후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위한 2030 프레임워크', '2020 기후 에너지 패키지',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실시함에 따라,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량은 19%가 감축하였고 28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은 45%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은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탄소에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시장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유럽에 닥친 경제 불황이 시장 기능을 약화시켰고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아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은 세계에서 저탄소 기술의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으며, 단기적인 정책 개입과 규제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지향하는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베트남 탄소 시장 건설 준비'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권 시범 시행, 국내 및 세계 탄소 시장 참여를 계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베트남은 국내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8%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해외 자원이 추가되는 비자발적 감축은 25%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베트남은 지속해서 경제 발전과 기후 변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 국가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한국은 2002년 석유 소비 6위, 에너지 소비 10위, 전력 소비 8위, 이산화탄소 배출 9위를 기록하여 온실 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협약 내에서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이하로 줄이기 위해 자진하여 감축에 힘쓰고 있다.

의제 관련 국제사회적 활동

현재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세계 배출권 거래제의 예로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도쿄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로 유럽과 같은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6년 기준 유럽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도쿄 배출권 거래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로 가정집, 회사, 건물과 같은 민간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국은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1995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비롯하여 2015년 신기후체제를 도입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국제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25개 지방정부가 그리고 42개의 국가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추세다. 실제로, 미국 북동부지역에서는 지역 온실가스 주도권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또한 국제사회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매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평균 2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협상 기간, 회의, 연중 워크숍 그리고 회의를 개최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각국과의 의견 공유를 거듭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기술적인 면을 지원함에 따라 지구온난화 예방에 일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와 민간인 공동의 합의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대책은 마라케슈 파트너십이 있다. 마라케슈 파트너십은 정부와 민간인이 공동창설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며 정부, 민간인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전망

화석연료의 사용, 삼림 벌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 이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폭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건조기후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온대기후 지역은 농업, 주거가 불편한 아열대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와 같은 다양한 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와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협약의 내용 중,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선진국만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은 정확한 조사 없이 단순히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지게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속속히 협약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이익보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자리에 참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

결론

전 세계는 각국의 산업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은 예전보다 발전하였으나, 그 원인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도가량 오르게 되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류가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노력이나 이바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회복 능력을 잃어버린 지구에서 살게 될 것이다"이라 하였고, 한국환경교육학회 전문가 또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지 않으면 곧 지구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동·식물 멸종의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빙하기 또는 인류의 멸종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각국의 화합과 노력을 통해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참고 문헌

김 계연. "선진국 탈퇴 움직임...교토의정서 무력화되나", 연합뉴스, 13 Dec. 2011.

김 두산. "지구온난화가 끼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은?" *More Genetically Modified Crops Found Growing in South Korea : Business : News : The Hankyoreh*, 9 Nov. 2008

김 재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술 대책", 연구 평가 사업실, 2007.

곽 노필 . "지구 온도, 10년 안에 억제선 넘는다." *More Genetically Modified Crops Found Growing in South Korea : Business : News : The Hankyoreh*, 16 May 2017.

노 동운.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시사점."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시사점*, 5 Feb. 2016,

논문 DBPIA - [초점과 대안 · 1]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윤순진]

논문 DBPIA -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유종민, 유재형, 김지태, 이종은]

문 진영, et 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7 Dec. 2017.

박 태진. "온난화 여유온도까지 0.65도, 지구 온도에 빨간불!" *More Genetically Modified
Crops Found Growing in South Korea : Business : News : The Hankyoreh*, 3 June 2013.

볼런티어굿뉴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김유진 기사 2016.06.21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대책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5호) "최근 세계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시사점"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정점 찍었나...기후재앙 방지 '희망' 중앙일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2014,

이 다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데일리팝*, 3 May 2016,

이 상흔.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조선pub*, 2 Feb. 2017.

장 명화. "유엔기후변화협약." *Radio Free Asia*, Radio Free Asia, 18 Dec. 2014.

"지구온난화의 영향." *지구온난화의 영향*, 2013,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시사점" [문진영,이성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후변화협약."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중국,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방안 도입 예정"

IEA (2004),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산자부(2004) 통계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 박민숙]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4.08.07 Vol 14 No.6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시사점]

RGGI.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Welcome / RGGI, Incorporation*, 2018.

UNEP한국위원회.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환경운동연합*, 21 Aug. 200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UNFCCC*, 2018.